

#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

(김영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9 |
|----------|------|

발의연월일 : 2015. 1. .

발 의 자 : 김영미, 이동주, 차재홍, 김운정,  
신종갑, 김효식, 유호렬, 전승학,  
백남환, 이봉수, 서종수, 이필레,  
문정애의원 (13명)

##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가.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지하화되어 유휴 부지로 남게 된 용산 문화체육센터~가좌역 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지난 2009년부터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나. 그러나, 사업 완공시 서울시에서 가장 긴 공원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원 곳곳이 단절되어 공원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주민들 역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다. 따라서, 공원의 단절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서울특별시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3. 이송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복선 철도인 경의선은 지난 1906년 완공되어 그간 우리 나라의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많은 여객과 화물 수송을 분담해왔으나, 1999년부터 시작된 전철화 사업에 따라 마포와 용산 구간이 지하화되어 지상은 유희 부지로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철도 운행으로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서울특별시는 유희 부지인 용산문화체육센터부터 가좌역까지 6.3km 구간에 대하여 2009년부터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2016년 6월 최종 완공할 계획이다.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염리동에서 대흥동 구간 1단계 사업은 2012년 4월 완료가 되었고, 새창고개에서 연남동 구간 2단계 사업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서강동에서 신수동 구간 3단계 사업은 오는 2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총 102,008m<sup>2</sup>의 면적에 4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되는 경의선 숲길 공원은 각종 나무를 심어 녹지가 부족했던 지역의 녹지경관을 크게 향상 시킨 것은 물론, 산책로와 자전거 길 조성 및 운동시설과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 광장 등을 설치해 인근 직장인과 지역 주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오랜 세월 기차가 다녔던 철길은 이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녹색문화 공간의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의선 숲길 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도로 등으로 인해 곳곳이 단절되어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지난 2007년 마포구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과는 다르게 단절된 구간에 대한 연결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공원은 효용가치가 떨어져 이용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는 단절된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연결 공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서울특별시는 경의선 숲길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 공사를 즉각 추진하라.
1. 서울특별시는 경의선 숲길 단절구간 해소 방안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2015. 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2015년 1월 23일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용범

#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 1. 안건명

-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16일(金), 김영미 의원 외 10인

###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5년 1월 16일(金)

###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지하화되어 유휴 부지로 남게 된 용산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좌역 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지난 2009년부터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시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원 곳곳이 단절되어 공원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주민들 역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원의 단절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서울특별시에 촉구하고자 결의한 사항임.
- 경의선 철도부지 지상부 공원화사업은 그 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철도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를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일의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임.

- 공원화 사업이 2016년 6월 최종 완공되면 공원은 각종 나무들로 심어져 녹지경관을 크게 향상 시킨 것은 물론 산책로와 자전거길 조성 및 운동시설과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 광장 등을 설치해 인근 직장인과 지역주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 매김 되고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녹색문화 공간의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장미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의선 숲길 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도로 등으로 인해 곳곳이 단절되어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 따라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 40만 구민의 뜻을 모아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이 중간에서 허리가 잘린 미완성의 공원이 아니라 용산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좌역구간까지 계속 연결하여 완성된 경의선 지상부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의선 숲길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촉구하는 것은 마포구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 됨.